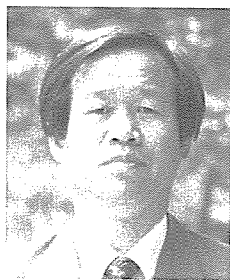


과학과 문학은 동반자

과학과 문학의 거리는 멀기만 한 듯하다. 그러나 양 극단의 조화에서 최고의 가치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순리라면 과학은 문학을, 또 문학은 과학을 새로운 동반자로 인식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백여년 전 상견례를 한 과학과 문학이 앞으로 백여년 후에도 해로하길 기원한다.



張師善

(홍익대 문과대 국문과 교수)

문학과 과학의 거리는 자못 멀기만 한 듯하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무정견성(無定見性)과 쇠말사(瑣末事) 집착을 못마땅해 하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무논리성과 황당무계함을 비웃는다.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관계이기에 왕래 또한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세상만사 양 극단의 조화에서 최고 가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순리이기에, 과학은 문학을, 문학은 과학을 새삼스런 동반자로 인식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려는 노력이 절대 필요할 것이다. 이제 백여년 전 이루어졌던 양자의 초기 상견례를 되살피며, 백여년 후로 이어질 상보적 해로를 기원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문학에 나타나는 과학은 다양하다. 현실적 상상적인 과학 진보가 인간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충격과 영향을 다루는 과학소설, 실증주의·객관주의 등

의 도구로 작품평가를 시도하려는 과학적 비평, 인종 환경시대라는 외적 조건들이 작품의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관계를 입증하려 하는 과학적 문학사 등이 있는가 하면, 진화론, 유물론 등으로 인간 생활을 들여다보아 문화의 발전사를 통째로 바꾼 역사적 사례 등도 있다. 이들 중 특히 진화론의 문학권 진입은 문학의 발전 흐름을 크게 바꾼 문학과 과학의 관계사 중 최대 사건이었다.

진화론이 문학에 끼친 영향은 처음 프랑스의 이론가 브뤼띠에르나 소설가 졸라 등에게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학 장르 역시 생물의 종과 마찬가지로 발생·성장·쇠퇴·소멸하며 다른 장르의 발생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19세기 말 당시까지의 문학사를 뒤엎고 새로운 문학사를 세운 브뤼띠에르나, 인간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서의 문학관을 확립하며 유전과 환경이라는 양대 요소로 인간을 분석 해부한 소설 「루공 마카르 총서」를 발표한 졸라의 업적은 아직도 세계 문학사에서 찬연히 빛나고 있다.

졸라의 「루공 마카르 총서」(1871~93, 총 20권의 소설)는 테느의 결정론, 베르나르의 실험의학서설, 루카스의 신경 계통 유전학 등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자연적·사회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과학적 모습

을 그림으로써 인간 성찰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다. 신경병의 한 여자가 루공이라는 건강한 농부와 결혼하여 낳은 자손들이 적극적·의지적 성격을 지닌 상류층 지배층이었던데 반해, 마카르라는 주정뱅이 밑수업자와 재혼하여 낳은 자손들이 의지 박약하고 병적인 사회 하층민들이었음을 대조하며, 졸라는 가식 공상적 요소를 벗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재현해 냈다.

이런 과학적 인간관은 일본의 경우, 명치유신(1868)을 전후하여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초판이 발간된 것이 1859년이었는데, 지동설에 이어 과학을 신학의 노예로부터 해방하고 천지창조설을 위시한 그리스도교 신앙에 절대적 타격을 주었다. 물론 문학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1900년 무렵 서양 최대의 저술로 「종의 기원」이 꼽혔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가로는 나츠메 쇼오세키나 후타바데이 시메이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무렵부터 졸라의 이름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1915년에는 백대진이 「현대 조선」에 '자연주의 문학을 제창함'이라는 글을 발표해, 그 이전의 몽환적·비현실적 문학을 거부하고 현실과 과학에 입각한 리얼리즘 문학을 선창했다. 1920년대에 들어 김억은 본격적으로 자연주의 문학 이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허황된 문학이나 데카단적 문학을 거부하면서, 과학적 방법, 객관적 태도로 인간을 관찰·실험·해부하여 신의 부재나 인간의 추악성 등을 폭로했다. 1920년대 초반부터는 마르크스주의 문학관이 이 땅을 풍미했다. 이것들은 곧 우리 근대문학 비평사의 본격적 출발점이자 과학적 문학관의 원류로 보아야 할 부분이다. ④7